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1994~2004)

제 495 호 불기 2548년 10월 13일 수요일

설문으로 보는 1994~2004년

www.buddhanews.com

C17

매체포교 이정표 다시 세운다

‘14차례’ 묻고 분석...나갈길 제시

새싹포교·군포교·지역불교·신행의식 등... ‘대안’ 제시

현대불교는 지난 10년간 모두 14차례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인 설문조사이고 이 수단을 통해 현실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신문론의 중요한 기능이다. 어린이 포교, 군포교, 지역불교 활성화, 국회의원불자들의 의식, 재가불자들의 신행의식 등 다양한 주제로 꾸준히 실시해 온 설문조사는 지난 10년 한국불교 역사의 가장 적나라한 단면들이다. 그 단면에 드러난 ‘정신’을 되짚어 보았다.

◆ 불자의원 80% 불교상징물 지녀

95년 신년을 맞아 실시한 ‘국회의원 불자신행 설문조사’는 국회의원회원과 국회의원회동위원회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계 언론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이었다. 여기서 의원불자들의 80.0%가 가정에 불상 등 불교상징물을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불자들의원은 설문에서 한 두 곳의 사찰을(57.5%) 정해 놓고 다니며, 75.0%의 응답자가 3개월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사찰을 찾는다 고 답했으며 도덕성 회복 및 종단통합을 한국불교의 당면과제로라고 지적(35.0%)했다.

◆ ‘직업포교사제도 실시 시급’ 87%

95년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은 ‘포교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4백 명의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이 조사에는 포교활성화를 위해 직업포교사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87%), 이를 위해 각 단원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가치관 확립돼 지역에 기여” 88%

95년 창간 1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윤리 가치관 정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지자체 불자단체장(67명 중 48명)은 “사람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 윤리적 가치관정립(87.5%)’ ‘사회복지(6.3%)’ ‘환경보호(3%)’ ‘경제정의 지역개발(3.2%)’ 등의 순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 “염불할 때 지루해오” 어린이 34%

96년 부처님오신 날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에는 어린이법회 회원 564명이 응답했다. ‘새싹불자를 키우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설문에서 어린이들은 절에 다니는 이유로 ‘부모님이 불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꼽았다(80%)다. 또 법회참여 불충분하고 절할 때(각각 33.8, 26.2%)가 가장 지루하다고 답해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정기법회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실정을 드러냈다.

◆ “가야산 골프장 반대” 불자 의원 60%

96년 창간 2주년을 맞아 펼친 설문에서

제15대 국회정각회 소속 불자의원의 60%가 가야산 골프장이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불교문화원(원장 홍무형)과 공동 실시한 ‘국회 정각회의원 신행 설문조사’에는 정각회원 35명의 의원들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74.3%(26명)가 ‘불교계 후원사업을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안을 잠정하여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 군법사 부속이 군포교의 ‘지뢰’ 28%

수계 장병의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던 97년 창간 3주년을 맞아 군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군포교의 현황을 살펴 봤다.

회장에 듣는다’를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사암연합회장은 전체의 절반가량. 이들은 사암연합회는 대외적으로는 ‘지역민과의 친목도모(9.4%)’,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한 신뢰감 형성에 기여(33.3%)’ 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회원사암간의 화합과 권익보호(32.3%)’, ‘관청 상대 청구단일화의 역할(8.3%)’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나는 불자로서 몇점?” 59점

<우바새경> <일제사정>에 나타난 ‘불자의 조건’은 ‘삼보의 귀의’부터 ‘지계’, ‘스님에게 청법’ 등 모두 16가지다. 불자들은 이 16가지 조항을 어느 정도 지켜나가고

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불자들은 가정화목(41.0%)과 어려움을 극복(34.1%)하는 데 가정법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가정법회를 하고 있는 가정은 10곳 중 2곳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가정법회를 갖는 불자들 중 절반가량인 45.6%가 불규칙하게 하고 있어 아직 가정법회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는 불자 351명이 응답했다.

◆ “공부는 많이 해도 실선은 조금” 70%

99년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실시한 ‘재가불자 신행의식 조사’에서는 불자들 10명 가운데 7명은 체계적으로 교리공부를 했으면서도 교리의 체계적 이해와 이웃을 위한

의 불자들이 응답했다. 응답한 불자 중 10명 가운데 8명(77%)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법회나 수련회 등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행 생활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행에 대해서는 ‘매주 법회에 나가겠다(25%)’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말수련회 참가(20%)’, ‘불교문화행사 참가(16%)’, ‘불교단체나 동호회 회원 활동(11%)’, ‘불교복지시설 자원봉사(11%)’, ‘교리공부(11%)’ 등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 사회변화 수용한 포교프로그램 필요

2002년 신년 벽두에는 당해의 주요 이슈인 월드컵과 주5일 근무제시행, 각종 선거 등 정치환경의 변화, 경제난 가속, 위성 TV

선수>와 공동으로 실시한 ‘재가불자 의식조사’는 분지 구족자 중 재가불자 1만1천 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참된 불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는 22.8%, ‘그렇지 않다’는 7.1%였다. 이 결과에서 불자들 대부분이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불자다운 삶을 가꾸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불교가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삶의 전부’(33.4%) ‘의지처’(28.7%) ‘사고와 행동의 기준’(28.2%) ‘여가 수단’(3.9%) 순으로 나타나 불자들의 삶에 불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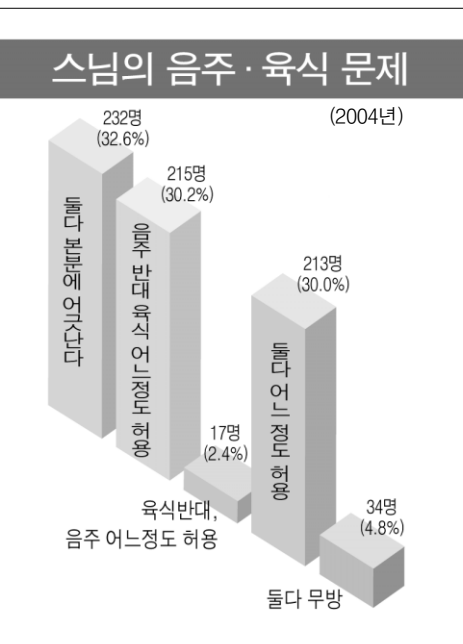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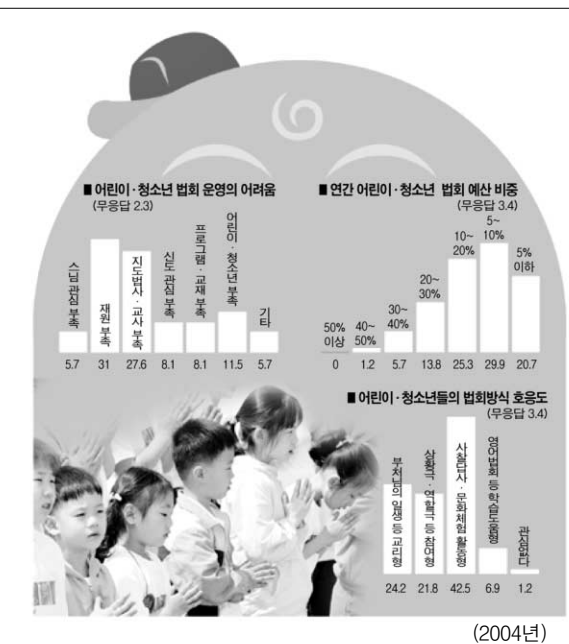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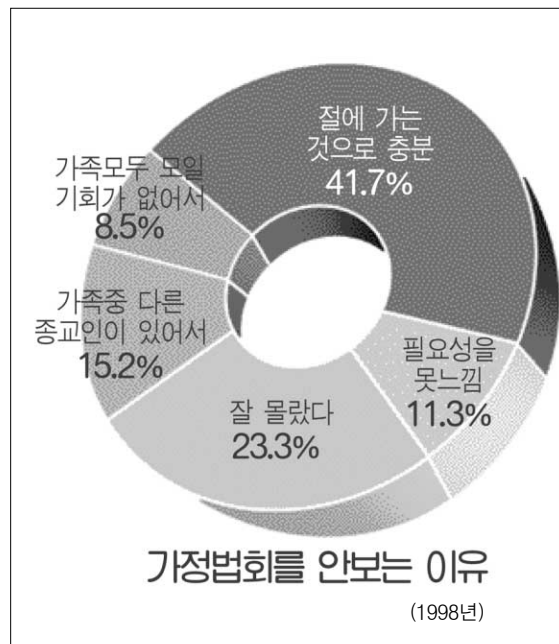
◆ 스님들 음주·육식 “안돼요” 33%

2004년 새해를 맞아 ‘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쏘자’라는 주제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늠하는 설문을 실시했다. 이 설문에서는 계율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7%로, 아니라는 응답 34.9%에 비해 20% 가량 높았다.

계율이 바뀌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스님들의 음주와 육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체 711명의 응답자 가운데 232명(32.6%)이 ‘둘 다 본분에 어긋난다’고 답한 반면, ‘육식은 어느 정도 괜찮다’ 30.2%, ‘둘 다 어느 정도 괜찮다’ 30.0%를 합쳐 60% 넘는 응답자가 최소한 육식은 허용해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 “어린이 없어 법회 못해” 30%

2004년 부처님오신 날을 앞두고 현대불교 새싹불자 포교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대상 480개 사찰 가운데 어린이법회를 운영하지 않는 392개 사찰들은 그 주된 이유로 ‘참석하는 법회 참가 어린이가 적어서(29.8%)’라고 답했다. 사찰이 찾아가는 포교, 적극적인 포교 보다는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포교를 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또 이 설문에는 ‘재원 및 운영상의 문제’와 ‘지도법사 또는 지도교사의 부재’를 이유로 꼽은 사찰도 23.5%와 12.8%나 됐다. 그러나 어린이법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96년 부처님오신 날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에는 어린이법회 회원 564명이 응답했다. ‘새싹불자를 키우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설문에서 어린이들은 절에 다니는 이유로 ‘부모님이 불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꼽았다(80%)다. 또 법회참여 불충분하고 절할 때(각각 33.8, 26.2%)가 가장 지루하다고 답해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정기법회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실정을 드러냈다.

설문에는 92명(현역 52, 예비역 40)이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군법사 부속이 군포교 저조의 중요한 이유라고 보았으며(28%) 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암과의 협조체제 구축(45.5%)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꼽았다. 예비역법사의 활용(23.9%), 재가법사의 활용(15.8%)도 필요한 해소 방법으로 제시됐다.

◆ “화합만 되면 민사형통” 32%

98년 새해를 맞아 지역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지역 불교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사암연합회

있을까. 98년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불교신행단체 종사자, 사찰신도회 회원 등 201명의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는 참 불자인가’ 설문에서 그 답을 얻었다. 불자들은 16개 항목 가운데 약 9.4% 항목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백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재가신도의 불자소양 점수는 58.7점이다.

◆ “가정법회는 회목의 주춧돌” 41%

98년 10월 창간 4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가정법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응답자들이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생활에 도

보시의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사회봉사를 중요한 신행활동으로 여기고 있다. 응답자의 82.7%가 매월 1회 이상 사찰을 찾았다. 한국불교연구원 우리는 선우, 동산반야, 삼보법회, 바른법연원, 정토회 등 회원 51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 “주5일 근무제 신행의 굿 찬스” 77%

2001년 사회변화의 주요한 코드로 부상한 ‘주 5일 근무제’. 붓다뉴스와 붓다뉴스 회원 전자우편 등을 포함해 실시한 ‘주5일 근무제 활용 계획’에 대한 설문에는 581명

개교 등을 중심으로 포교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설문을 했다. 이 설문은 교계 지도급 인사 50명을 응답자로 선정 공개해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이들 사회 환경의 변화를 포교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 변화 요인 가운데 주5일 근무제를 가장 좋은 포교 기회라 꼽았고 다음으로 월드컵, 미디어 환경, 경제, 정치 순으로 꼽았다.

◆ “참된 불자 되려고 노력” 67%

200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당 하 당 노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 (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어느만큼 치료할 수 있다" (책)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탄성피로
- 복용 15~20일후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080-521-6666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선천성 병체 신축비람 남 습 진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통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민속의학자 권재우 동(경남 신성)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간(肝)

간 지방간 간경화

참다슬기 농축액

건강애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달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술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담근다. 농축액은 60도 된탕으로 포장한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g마늘 50g을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든다.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60~80이 걸린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천하명당-배산임수-시계절 물이 철철 흐르는 곳

시찰부지/연수원/복지관부지

위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현산 자락에 위치
안성 C·C근처 / 칠장사 진입도로 입구

도로: 2차선 점선지 / 접근성이 매우 훌륭함

면적: 3,000평~10,000평 (필요한 면적 만큼)

특기: 天下明堂 地氣를 찾는분 환영
부지내 지하수가 매우 풍부함
청룡·백호 외호가 뛰어나며 특히, 백호가 역수(逆水)한 곳
중개인 사절 (실수요자만 직접 면담)

연락처: (주)02-2269-4023 / (08)011-9713-9984